제5장 성실하라

도 입

여러분들이 다니거나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나 학급의 급훈 때로는 집안의 가훈 가운데 '성실(誠實)'이니 '근면(勤勉)'이니 하는 것을 자주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매우 뜻이 깊고 중요한 말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성실이라는 말은 유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국어사전을 보면 그 뜻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풀이하여 대체로 본래 말하는 것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껏 자기 몸을 닦는 수기(修己)의 공부 가운데 지식을 획득하는 공부를 말했다면 앞으로 실천하는 공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실천이란 아무렇게 성의 없이 되는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 개인의 일이든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든 모두 그러하다. 그러한 태도가 성실이다.

그렇다면 율곡 선생이 소개하는 성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본 문

[율곡의 풀이]

이치를 궁구(窮究 : 속속들이 깊이 연구함)하는 것이 이미 밝아졌으면 궁행(躬行 : 몸소 스스로 행함, 역행과 같은 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성실한 공부를 한다. 그러므로 성실(誠實)이 궁행(躬行)의 근본이 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충(忠)과 신(信)을 위주로 하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제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한다. 성실하게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

다. 충(忠)은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며, 신(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대학]

뜻을 성실(誠實)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며 미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것을, 이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 혼자 아는 곳을 삼간다.

[중용]

성실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을 귀하게 여긴다.

[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성실함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

[율곡의 풀이]

하늘에는 성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화(氣化 : 기의 변화)가 쉬지 아니하고 유행(流行)하며, 사람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해서 환히 밝고 틈이 없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와 어긋나게 된다. 어버이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지만 효도하는 자는 드물고, 형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으면서도 공경하는 자는 적으며, 입으로는 부부(夫婦)간에 서로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안을 가지런히 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어진 이를 보면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색(色)을 좋아하는 데로 옮아가고, 사악(邪惡)한 자를 보면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첨을 받아들이기를 사사로이 좋아한다. 벼슬에 있는 자는 청렴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렴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기르고 가르칠 것을 말하면서도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르거나 가르치지도 않는다. 또 혹은 억지로 인의(仁義 : 착함과 의로움)에 힘써서 겉으로는 볼만할 듯하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은 인의에 있지 않다. 속이고 거짓된 것은 오래가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재빠르게 설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게을러지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모두 성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 되니, 어디를 간들 갈 수 있겠는가? 마음이 성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진실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하

겠는가? 그러므로 주자(周子: 북송의 周敦頤)가 말하기를, "성실이란 성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 지도자로서 남을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다. 지금 비록 따로 한 장(章)을 만들어 그 대개를 진술하였지만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는 실로 상하의 모든 장(章)을 꿰뚫고 있다. 예컨대 뜻[志]은 성실함이 없다면 서지 않을 것이고, 이치는 성실함이 없다면 알지 못할 것이며, 기질(氣質)은 성실함이 없다면 변화시킬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

해설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실의 한자 원문은 '성(誠)'인데, 성실에 대한 역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유학에서 깊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한자 '성(誠)'에 대한 뜻을 찾아보면 대개 '정성', '진실', '참'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본문에서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사서(四書) 가운데서 성실과 관계된 대표적인 말을 소개하였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마치 조폭의 졸개들이 두목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충성을 조직의 리더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 곧 성실을 다해야 하니 임금에게나 조직의 리더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다. 그들이 잘할 때 복종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하는 것도 또한 충성이다.

그런데 성(誠)이라는 말의 뜻을 정성이나 진리 참 등으로 풀이할 때 어디에 그 근거를 두었을까? 본문의 『맹자』에서 "성실함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라고 말했는데, 성실한 것은 천도 곧 자연의 길이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 곧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의 길이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연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계절이 차례대로 번갈아 바뀌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길러내어 이루게 한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운행한다. 그래서 『중용』에서 "성실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연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물이 생겨나고 자라고 이루겠는가?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자연을 볼 때 정성스럽고 참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다. 자연처럼 인간도 자신의 일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하고, 임금 또는 지도자가 백성이나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래야 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자신의 할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음 곧 신뢰가 생긴다.

생각해 볼 문제

1. 이 성실 장을 읽노라면 마음이 실로 숙연해진다. 특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말에 이르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아버지가 아버지 도리에 성실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고, 학생이 학생 도리에 성실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도리에 성실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성실은 우리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사례를 두 가지 더 들어 보세요.

2.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달리는 KTX 열차를 탔을 때 달리는 속도에 감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바퀴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바퀴 탈선으로 일어난 대형사고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성실성은 개인의 자질의 문제에만 달려있을까? 율곡 선생이나 유학의 주장은 개인의 자질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질의 강조와 함께 또 이들의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3.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마디로 그 배의 운항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배를 관리하는 회사의 불성실한 문제에서 비롯한 일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행동했다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제2의 '세월호 사건'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 그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말해보세요.

4. 사실 율곡 선생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어떤 개인적 이득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 일이 옳다면 성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능력이 요구되는 주장이다. 그런 도덕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군자라 일컫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스스로 군자가 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런데 율곡 선생이나 성현들은 누구나 이런 군자가 될 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게 유학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인간일지라도 아무리 작다 해도 도덕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못 빠지게 도와주는 행위 따위가 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각자의 경험에서 이런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해 보세요.

자 왈 고 지 학 자 위 기 금 지 학 자 위 인
子曰 古之學者爲己하고 今之學者爲人하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 위대한 스승의 성 뒤에 붙이는 글로서 '~선생님'의 뜻/曰 : 말하다/ 古 : 옛, 옛날/之 : '~의'를 뜻하는 어조사/學 : 배우다/者 : 사람/爲 : 위하다, 되다/己 : 자기/今 : 이제, 지금/人 : 남, 사람

*병렬문으로 양쪽 모두 주어는 學者이며 동사는 爲이다.
*爲己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덕이나 인격을 위한다는 뜻
*爲人은 남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거나 남을 가르쳐 이득을 얻기 위한다는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위기지학(爲己之學) :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
*위인지학(爲人之學) : 남에게 보이기 위하거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학문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배웠는데,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배운다."

맹 자 왈　　성 자　　천 지 도 야　　사 성 자　　인 지 도 야
孟子曰, 誠者는 天之道也요 思誠者는 人之道也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誠 : 정성, 성실/者 : ~것/天 : 하늘/道 : 길, 도리/也 : 문장 뒤에 붙는 어조사/ 思 : 생각하다/人 : 사람/ 之 : ~의

*誠者는 성실한 것 또는 성실을 말함

*思誠은 성실하고자 생각하는 것으로 성실하고자 하는 것을 뜻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도(天道) : 직역하면 하늘의 길로서 자연의 원리를 뜻함

*인도(人道) : 사람의 길로서 사람의 도리를 뜻함

해석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성실한 것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